

장석창, 제6대 대한장애인볼링협회장 당선

대한장애인볼링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장석창 당선인을 발표했다. 대한장애인볼링협회는 제6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장석창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고 지난 12월 14일 홈페이지에 당선을 공고했다. 이로써 장석창 당선인은 오는 2월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한편 장석창 당선인은 현재 한국볼링경영자협회장을 비롯해 한국프로볼링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볼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 장석창 당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2] 장석창 당선인과 선관위 및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대한장애인볼링협회가 12월 14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6대 회장으로 장석창 당선인을 공고했다. 이에 장석창 당선인은 16일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사무실에서 당선증을 전달받았고, 내년부터 4년간 대한장애인볼링협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장애인볼링협회는 지난 11월 29일 회장선거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 기간을 가짐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3일부터 열흘 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3일 선거를 실시했고, 14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을 공고했다.

결과 장석창 후보자가 단독으로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별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16일 협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

증을 교부했다. 장석창 당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볼링경영자협회 제4대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프로볼링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볼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장석창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5년 2월에 예정된 정기총회부터 시작되며, 취임식 역시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